

변화와 도전을 위한 한해가 되길...



강춘성 회장,
전국농업기술자협회

병술년 새해를 맞아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하시는 일들이 더욱 번성하기를 기원합니다.

회원 여러분들과 우리 협회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농촌도 새해에는 희망이 가득찬 날이 이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희망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철저히 준비하고 실천하는 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이 무엇인가? 개선점이 무엇인가? 적극 검토하고 실천에 옮길 때 희망은 현실로 차츰차츰 가까이 다가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는 지난 46년의 전통을 말하고 우리 협회의 회원으로서 참여가 자랑스럽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아무리 아름답고 찬란할지라도 오늘에 존립의미가 퇴색된다면 큰 위기를 맞고 있는 것 입니다.

이 땅의 농업농촌 근대화에 크게 기여했던 우리 협회가 지금 위기를 맞고 있는 농업농촌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열심히 농업농촌 발전에 전념해 온 회원들에게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묻는다면 자신 있게 말 할 수 없는 현실이 유감스럽게도 우리 협회의 존립위기라고 하겠습니다. 이 위기를 우리들은 외면할 수 없습니다. 외면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자멸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변화와 도전이란 화두로 위기극복과 희망을 갖는 새해를 맞이해야겠습니다. 우리들이 안고 있는 큰 문제는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회원수의 급격한 감소와 후계 인력의 참여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재정압박으로

2006



이어져 건전한 협회 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기존회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규회원의 영입, 재정압박을 벗어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지만 큰 성과를 얻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지금까지 운영되어 온 안일한(?) 대응의 결과가 아닌가하는 자성도 해봅니다. 현상유지에 급급하고 급변하는 시대와 농업농촌의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대처가 미흡했다고 하겠습니다.

위기 극복은 지속적인 노력과 과감한 도전으로 우리 회원들과 농민들이 농촌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21세기의 살맛나는 농촌을 가꾸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면 선도농가로서 자긍심을 갖게 될 것이고, 우리협회에 동참하는 신규회원도 늘어날 것입니다.

살맛나고 살고 싶은 농촌으로 만들기 위해 신년에는 이를 위한 교육 훈련에 협회의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시대에 부응하는 선도농가로서 농민의 정신혁명, 농업의 기술혁명, 농촌의 생활혁명을 창조명하고 이에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지혜를 모아갈 것입니다. 협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수입원도 다양화하여 재정자립을 굳건히 하겠습니다.

우리 협회는 대다수의 회원들이 고령입니다. 고령인 회원들을 위한 건강하고 보람되며 즐거운 삶을 살아가도록 농촌노인문제에 접근할 것입니다. 이는 농촌주민들 삶의 질 향상과 국가 재정의 부담을 크게 줄이고, 지역사회의 활성화에도 기여 할 것입니다.

회원들이 앞장서서 살맛나는 농촌을 가꾸고 만성적인 적자 개선을 하고 노령화사회에 알맞은 농촌노인들이 건강하게 살도록 하는데 일익을 우리 협회가 담당할 수 있도록 **제2의 창립을 한다는 심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의 역량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회원 여러분과 뜻있는 농민, 전문가, 정책당국과 함께 풀 어갈 것입니다.

변화와 도전으로 제2의 창립을 하는 굳은 결의로 병술년 새해를 맞이합니다.